

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주력

대구시간호사회 총회 최석진 회장 선출

대구시간호사회는 제30회 정기총회(제27회 대의원총회)를 3월 26일 호텔 라온제나에서 열고 새 회장으로 최석진 경북대병원 간호부장(사진)을 선출했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으며, 회칙에 따라 부회장 2명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이사= 권용숙(대구과타미병원 간호부장) 박경숙(철곡경북대병원 간호부장) 박명실(영남대병원 간호운영실장) 채영선(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처장) 최연숙(계명대 동산의료원 간호본부장) 김경옥(대구의료원 간호부장) 전복순(대구보훈병원 간호실장) 김나현(계명대 간호대학장) 서부덕(수성대 간호학과 교수) 이우숙(대구과학대 간호대학장) 권순희(대구교대부설초등학교 보건교사) 백은자(대구시 보건복지국장) △감사= 이경희(전주성삼병원 간호부장) 장근자(대구대 간호학과 교수).

대구시간호사회는 올해 회원들의 간호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간호정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한다.



이진숙 기자 sllee@

대지역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이웃돕기 사업을 계속기로 했다. 메디시티대구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한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대구·경북지역센터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10억230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대구시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김영경 간협 제2부회장 대독)이 격려사,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했다. 차순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이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장, 정미경 대구경북조산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호사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 매진

경북간호사회 총회 신용분 회장 선출

경북간호사회는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26일 호텔인더블고에서 열어 새 회장으로 신용분 순천향대 구미병원 간호부장(사진)을 선출했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제1부회장= 송병숙(포항성모병원 간호부장) △제2부회장= 김영숙(경북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이사= 구분선(차의과대 구미차병원 간호부장) 김미경(안동의료원 간호부장) 김은숙(포항의료원 간호부장) 김현정(동국대경주병원 간호부장) 박혜숙(동양대 간호학과 교수) 변선희(안동시 국공보건의료소장) 신옥순(구미시 사곡 보건교사) 우 숙(포항제명기독병원 간호부장) 이명희(김천의료원 간호부장) 최은정(경북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사무관) △감사= 박현미(전 동국대경주병원 간호부장) 최명진(전 포항세명기독병원 간호본부장).

경북간호사회는 올해 간호사 권익옹호 및 지위향상에 힘쓰고,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간호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간호행정자 세미나, 간호사 역량강화 세미나, 간호사 워크숍, 조직문화개



이진숙 기자 sllee@

선 교육 등을 실시한다. 분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시간호사회별 학술간연회 개최를 지원한다. 간호봉사대장정을 실시하고, 시간호사회 간호봉사대별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경상북도보건재단협의회 주관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사업에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9억770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경북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김영경 간협 제2부회장 대독)이 격려사를, 이남희 경상북도 정무실장과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이 축사를 했다.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장, 정미경 대구경북조산사회장, 손인석 대한남자간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호법 제정에 힘 모으기로

전북간호사회 총회 회원 역량강화교육 실시

전북간호사회(회장 안옥희)는 제70회 정기총회(제28차 대의원총회)를 3월 27일 전주 트윈호텔에서 열고 올해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전북간호사회는 올해 대한간호협회가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입간호사들을 위한 입과워킹 교육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간호사회는 입과워킹 교육의 일환으로 신입간호사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고 있으며, 전북간호사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간호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힘쓴다. 보수교육의 질 관리에 주력한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학술논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한다.

간호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에 힘쓴다.

회원 고충 상담, 회원 위로금 지급 활성화,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등 회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각 기관별 노인간호봉사단 활동비를 지원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전북간호역사 발굴 및 기록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아노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올해 예산은 8억284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전북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대독), 정운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임양순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축사를 했다. 나인권 전라북도 도의원, 정영달 우석대 총장,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황휘연 국민건강보험전주남부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간호사 처우개선 정책사업 주력

제주도간호사회 총회 회원 역량강화교육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 송월숙)는 제56회 정기총회(제20회 대의원총회)를 3월 30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는 올해 도내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간호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회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학술강연 및 간호연구 발표회 등 학술사업을 활성화한다. 회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의 내실화에 힘쓴다.

취업상담과 취업교육 등을 지원한다.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사업을 통해 회원단합을 도모한다. 소식지 '제주간호'를 발간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봉사단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유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올해 예산은 3억70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비는



주혜진 기자 hjjoo@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현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축사를 했다. 강명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양재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옥성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장, 현정자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신경림 회장이 '한국간호 정책과제' 주제로 특강을 했다.

대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기로

노인간호사회 총회 최귀윤 회장 재선임

노인간호사회는 제15회 정기총회를 3월 23일 이화여대 힐튼관에서 열고 최귀윤 현 회장(울산과대학 간호학과 교수·사진)을 재선임했다.

제1부회장에는 채화정 서울은빛요양병원 간호부장, 제2부회장에는 박혜련 KB플랫폼라이프케어 워레벨리지 원장을 선출했다.

노인간호사회는 올해 대정부 활동에 적극 참여해 노인간호의 전문성 확대에 주력하고, 특히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인간호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책을 건의한다.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한다.

회원배가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요양병원 간호부서장, 요양시설 및 재가센터 대표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노인간호실무 중심의 보수교육을 개발하고, 지회별 보수교육을 활성화한다.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간호사 대상 방문간호,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전문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사 자격시험 대비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원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원상담 등을 추진하고, e-소식지를 발행한다.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노인간호사회 홍보 브로슈어를 개발한다.

올해 예산은 910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노인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곽월희 간협 제1부회장 대독)이 격려사를 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과 과제' 주제로 특강을 했다.

보건진료소장 처우개선 주력

보건진료소장회 총회 손계순 회장 선출

보건진료소장회는 대표자회의 및 제3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29일 대전시 유성구 라온컨벤션에서 열고 새 회장으로 손계순 경남 거창군 양지보건진료소장(사진)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제1부회장= 안금순(충남 공주시 화천보건진료소장) △제2부회장= 안종희(경북 영주시 구구보건진료소장) △감사= 김순찬(충남 금산군 부리보건진료소장) 김영신(경기도 여주시 장안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소장회는 올해 보건진료소장의 처우개선 및 역할 확대를 위해 주력하기로 했다. 사무관 승진 기회 확보 등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의약품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진료소 사용 의약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회원들의 업무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수교육을 개발해 운영한다. 직무교육의 내실화에 힘쓴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성과대회를 개최한다.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회원복지상담 등을 실시한다. 유관기관과 활발히



주혜진 기자 hjjoo@

교류하고, 지역사회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지회 조직을 강화하고, 보건진료소장회 소식지를 발행한다. 2021년 보건진료소장회 4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1억803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보건진료소장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이 환영사를 했다. 총회에 앞서 송영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서기관이 '2019 보건정책방향' 주제로 특강을 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의료공간에선 제 부모, 제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환자를 내 가족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저에게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에게 존중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혼자를 다루는 응급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옵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돕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간호로 환자를 간호하기 전입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환자가 회복되는 걸 보는 것 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저에게 인생은 직업 그 이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